

Global Maestro News Briefing #6

CONSTRUCTION EMPLOYMENT INCREASED IN 39 STATES DURING THE PAST YEAR; 34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ADD JOBS BETWEEN AUGUST AND SEPTEMBER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미국 39개 주에서 건설 회사들이 건설인력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지난 한해 동안 미국의 대부분의 건설기업이 성장하였기 때문인데 미국의 건설시장이 침체의 늪을 벗어나 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별로 살펴보면 플로리다 주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한해 동안 41,900여 개의 건설관련 일자리가 늘어나 11.9%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캘리포니아(38,300개 증가, 6%상승), 텍사스(31,800개 증가 5.2%상승), 일리노이(11,700개 증가 6.1%상승)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핵심작업에 투입할 고급기술인력들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캔자스 주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의 무려 90%가 숙련기술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http://www.wagc.org/cs/news_media/press_room/press_release?presreleaseid=1646

<http://www.kansas.com/news/business/article3229046.html>

Joe Biden is very angry at us for scrimping on our infrastructure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역설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턱없이 미약하고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It is not acceptable)"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시대에 뒤떨어진 공항시설, 속도가 느려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철도 등을 예를 들며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처리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의견차이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통령을 내세워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여론을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wonkblog/wp/2014/10/21/biden-is-very-angry-at-us-for-scrimping-on-our-infrastructure/>

Ellen Weinreb checks the pulse of the CSO profession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 최고 지속경영 책임자)의 고용이 미국 기업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CSO에 대한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입니다. CSO는 기업에서 환경 관련 규제 문제를 처리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용한 경영진을 말합니다. 언뜻 보면 C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공헌적인 성격이 강해보이는데 CSO의 역할은 기업을 혁신하여 대내/외부적으로 집단의 이익을 제공하는 역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속경영 및 녹색경영의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의 가치창조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 경영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http://www.greenbiz.com/blog/2014/10/21/ellen-weinreb-checks-pulse-cso-profession>

Construction giant Bechtel 's Reston move shines spotlight on Md.-Va. business rivalry



http://www.washingtonpost.com/business/capitalbusiness/construction-giant-bechtels-reston-move-shines-spotlight-on-md-va-business-rivalry/2014/10/19/b9a4c03a-5606-11e4-ba4b-f6333e2c0453_story.html

Bridge Authority 's plans to reduce air pollution include fume-absorbing concrete

지난 9월 뉴욕주의 버팔로시 의회는 시의 공기 질을 개선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3백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디젤가스를 흡수하는 콘크리트를 도로 포장 및 건물에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이 지역에서 공기 질의 악화로 천식환자가 증가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의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http://www.buffalonews.com/city-region/buffalo/bridge-authoritys-plans-to-reduce-air-pollution-include-fume-absorbing-concrete-20140926>

Could desalination solve California's water problem?



해수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관심이 캘리포니아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수담수화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높은 것이 큰 장애물로 작용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오랜 가뭄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Poseidon Water社에서 샌디에고 카운티에 48,000 acre-foot의 담수를 \$2257/ acre-foot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비용은 현재 담수 공급비용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라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sacbee.com/news/state/california/water-and-drought/article3017597.html>

PhillyDeals: Wal-Mart shifts to 'e-commerce' facilities

미국의 Wal-Mart가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증가되는 경향에 맞추어서 기존의 소매센터 보다 대형 물류 창고의 확충 및 건설에 힘쓰고 있습니다. Wal-Mart는 하루에 하나 꼴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려 했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온라인 유통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새로운 소매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8억5천만 달러를 줄인 대신에 대형물류창고 공사 예산을 3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 근처에 9천6백만 달러 예산의 물류 창고 두 곳을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 중심의 시장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므로 미국 건설 시장 공략 시 물류 창고 프로젝트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articles.philly.com/2014-10-21/business/55242269_1_tax-break-warehouse-wal-mart-express

Rooftop solar is just the beginning; utilities must innovate or go extinct

미국의 Power Utilities社(전기 공급 회사)들이 기존의 business model을 변혁하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걸을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각 가정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자가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Utilities社의 수익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양광 사용 고객에게 추가 수수료나 각종 제한을 두려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태양열 및 대체 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net-metering standards*를 적용하는 주가 현재 43개 주에서 점차 늘어나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Utilities社들이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혁신하지 않으면, 과거 미국의 유전통신 회사와 같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 net metering standards: 손소비 전력량 또는 상계거래제 -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자신이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팔 수 있게 하는 제도

http://blog.koreenergy.com/2014/10/21/rooftop-solar-is-just-the-beginning-utilities-must-innovate-or-go-extinct/#.source=syndicator&utm_medium=s&utm_campaign=feed